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체제 제고 방안:

¹⁾나토 표준화 문서의 연합 상호운용성의 함의*

안 성 규

(성균관 대학교, 글로벌 미래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상 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교신저자)

<차례>

I. 서론

II. 정량적기본분석

III. Long Title의 제한적 정량 · 정성분석

IV. 작전 교리문서의 제한 정량 · 정성분석

V. 한미연합과 표준화

VI. 결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0S1A5B5A17087663).

<국문 요약>

최근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최근 한미 연합군연합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와 한미 동맹은 군사적 측면에서 각각 다국적 체제, 양자 체제로 다르지만 모두 방어를 위한 안보체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 승리를 목표로 하고, 미 군사력이 연합군사력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나토에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이유는 연합 군사력의 다국적성 때문인데 이는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이 나토 방식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면 현재의 전·평시 작전 분리 체제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이후 나토 상비군과 유사한 한국형 상비 연합군 체제도 갖출 수 있게 된다. 나토 표준화 체계와 내용을 깊이 연구하면 미국과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상호운영성, 협동성, 표준화, 연합체제, 동맹합동교리

1. 서론

1. 연구 목적

2023년 들어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한미 연합군은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 기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미연합군의 연합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 연합 작전능력과 상호운용성은 항상 중요 과제로 논의돼 왔고, 급증하는 대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연합상호운용성을 근간으로 하는 방안들이 육해공 전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보다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토 상호운용성의 함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토와 한미 동맹은 군사적 측면에서 각각 다국적 체제, 양자 체제로 다르지만 모두 방어를 위한 안보체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미 군사력이 연합군사력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런 연합군사력의 운용에서 상호운용성의 확대·강화는 핵심 요소이다.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미국은 나토와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나토는 군사 목표가 회원국 군사력이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달성 가능하며 동맹 기능의 진화는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데 상호운용성은 이 목표와 직결된다고 밝힌다.

나토에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이유는 연합 군사력이 다국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나토 작전의 핵심 표준화 문서인 AJP(Allied Joint Publication)-01 ‘동맹 합동 교리(Allied Joint Doctrine)’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군대와 지휘 구조는 항상 다국적이다. 이를 위해 일부 기능을 모든 국가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가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고 능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¹⁾

상호운용성은 무기와 작전체계가 다른 다국적 군사력을 하나로 묶어 임무에 투입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나토는 상호운용성을 ‘동맹이

1) NATO, AJP-01 ‘Allied Joint Doctrine Edition E version 1,’ 1.32항, (2017), pp. 1-13.

전술, 작전 및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²⁾ 한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한글용어사전은 상호운용성을 '서로 다른 체계·군 또는 부대 간에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³⁾ 유사한 정의지만 한국은 동맹보다 한국군 내의 합동성을 강조하는 기조다. 나토의 상호운용성 수준이 한미동맹보다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JP-01은 상호운용성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평시, 위기 또는 분쟁에서 연합군의 효율성은 일관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함께 작전할 수 있도록 제공된 군사력의 능력에 달려 있다. 연합 작전은 회원국들이 작전을 위해 제공하는 군사력의 상대적 강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준비, 계획 및 수행되어야 한다.”⁴⁾”

그런 인식을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이 표준화 문서다. 표준화 문서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는 AAP-03 ‘나토 표준화 문서의 생성, 유지, 관리를 위한 지침’(Directive for the Produc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NATO Standardization Documents)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준화는 동맹 군사력 사이, 그리고 NATO 군사력과 파트너 국가 군사력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달성, 유지 및 향상토록 지원하여 이를 통해 동맹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작전 효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표준화는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며 핵심 조력자

2) NATO, AAP-03, 'Directive for the Produc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NATO Standardization Documents Edition K version 1,' 1.1항 Background and Context 1. (2018), p. 5. AAP는 Allied Administrative Publication의 약자

3) 합참, 위 사이트 참조

4) AJP-01, op.cit., 1.4항, pp. 1-2.

(enabler)이자 중요한 능력 승수다.”

표준화는 동맹에 요구되는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절차를 갖추고, 무기나 장비를 설계하며 및 공통 용어를 개발하고 이행하거나 다국적 협력에 유용한 관행을 권장하는 것이다. 표준화 합의는 자발성을 토대로 동맹을 결합하는 실질적 접착제다.

본 연구는 다국적 군사 능력 강화와 관련해 나토가 연합 작전을 위해 물자·작전 부분에 걸쳐 구축하는 전략·작전적 상호운용성 양상이 표준화 문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한다. 목적은 나토의 연합 상호운용성 태세를, 한국의 연합 상호운용성 태세 전반과 비교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한미연합사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초점은 양측의 여러 측면 가운데 군사력의 물적·작전 준비태세에 반영된 상호운용성의 구현 방식이다. 관련 내용의 비밀성 때문에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이 많으므로 연구는 주로 구조적이며 정량적인 측면에 집중한다.

공개 학술서 및 인터넷을 공개 검색하면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개별 표준화 문서에 담긴 기술적 내용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나토 표준화 문서를 한미 연합체계와 연관해 분석한 연구는 없으며 유럽을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극히 적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미 연합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하는 독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심각해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연합전략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나토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척박한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계적·정량적이며 개론적인 분석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가 토대가 돼 관련 연구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2. 분석 대상과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은 2021년 10월 현재 나토 표준화 사무소(NATO Standardization Office, NSO)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표준화 문서다.⁵⁾ 구체적인 분석은 Short Title과 Long Title을 대상으로 정량 분석과 제한적인 정성·정량 분석을 한다.

1) Short Title 분석

표준화 문서에는 STANAG와 STANREC, 표준 문서(Standard, Std), 표준관련문서(Standard related document, Srd) 4개 유형이 있다. STANAG는 상호운용성을 위해 회원국이 합의한 표준문서다.⁶⁾ STANREC는 물자 부분에만 적용되며 다국적 협력에 유용한 관행을 권장하는 데 사용되는 구속력이 없는 문서지만 실제로는 관행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만든다는 점에서 STANAG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⁷⁾ STANAG와 STANREC는 드물지만 상호 전환될 수 있다.

Std는 동맹(Alliance) 문서나 다국적(Multinational) 문서 가운데 하나로 명칭이 정해진다.⁸⁾ 예를 들어 A로 시작되는 Std로는 동맹 합동 간행물(AJP), 동맹 공병 간행물(AEP), 동맹 교육 및 교육 간행물(ATrainP)이 있다. M으로 시작하는 Std는 다국적 간행물로 MMCP,

5) NATO Standardization Office(NSO), 2022. Public Site. <https://nso.nato.int/nso/nsdd/main/list-promulg>(검색일: 2021. 10. 1). 이 문서는 안성규의 “나토의 레벨-1교리 표준화 문서에 나타난 지휘관계 검토: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 미래 한미연합사 지휘관계에 대한 함의” 『신아세아』, 29권 2호, 2022, 여름, (pp. 31-60)에서 제시된 목록을 기반으로 한다.

6) AAP-03, op. cit., 1.6.1.1항, 1.6.1.2항, p. 7.

7) Ibid., 1.6.1.2항, p. 7.

8) Ibid., 1.7항, p. 9.

MMP 등이 있다. 이들 분류 기호는 그룹화된 문서들의 대표 명칭으로 해당 그룹 내에 하위 문서가 생성된다. AJP 계열에는 AJP-01, 2와 같은 순서로 문서가 형성된다. 하나의 그룹에는 작전, 군수, 행정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므로 그룹은 대분류라 할 수 있다. Srd는 하나 이상의 동맹 기준을 이해하고 집행하는 것을 촉진하는 문서다.

나토 표준화 사무소(NATO Standardization Office, NSO)는 STANAG와 STANREC에 고유 번호를, 표준 문서(Standard, Std), 표준관련문서(Standard related document, Srd)에 주제별 분류 제목을 부여한다. 번호가 붙은 STANAG·STANREC에 Std 및 Srd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해 Short Title을 구성한다.⁹⁾

Short Title은 STANAG와 STANREC, 및 Std의 수직·수평적 변화 추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짧은 제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비공개 문서가 70% 가까이 되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문서의 수직·수평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이다.¹⁰⁾ Srd는 Std의 하위 자료인데 Std에 Srd의 내용이 종합돼 있으므로 Srd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2) Long Title 분석

표준화 문서 전체의 질적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많은 무기 플랫폼과 작전을 다루는 문서 전체는 복잡성 때문에 본 연구의 한계를 넘

9) AAP-03. op. cit., Annex D: STANAG AND STANREC Templates D.1. General Structure of Covering Documents.

10) 비밀로 분류된 자료 열람은 나토 관계기관(NATO Bodies) 및 파트너 국가 인사(representative) 가운데 정부 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방식은 나토의 접촉국가(Contact country)로 분류되는 한국의 민간 연구자에게 비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이는 서방에서도 나토 표준화 문서 연구가 극히 적은 이유의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토 홈페이지는 2021년 10월 기준 1166개 가운데 337개 문서를 공개한다.

으며 비밀로 분류된 문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Long Title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면서도 본 연구에 필요한 물자·작전 분야에서 다양한 범위에 걸쳐 내용을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양적·질적 분석을 할 때 내용을 압축하고 특징을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세부 측면의 연구에 ‘비밀’ 분류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압축된 Long Title은 조작성 적합성을 갖는다. 표준화 문서 AAP-03의 Annex는 Short title과 Long Title을 정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는데 이 가운데 Annex D의 D.1 ‘표제 문서의 일반적 구조’ 2항에 따르면 Long Title은 그 내용을 다루는 문서의 주제와 일치되어야 한다.¹¹⁾ Long Title을 정하는 절차도 엄격하게 공식화돼 있다. Working Group(WG)의 지원 아래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은 합의로 결정되며 이를 임무기관이나 임무위임기관(Tasking Authority or Delegated Tasking Authority, TA/TDA)에 제출된 뒤 최종 결정된다.¹²⁾

이처럼 정제된 방식에 따라 내용이 압축된 Long Title를 대상으로 AAP-03 문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표준화 문서는 작전, 물자, 행정 3개 영역에 걸쳐 생성된다.¹³⁾ 이 가운데 문서의 수가 적은 행정은 제외하고 작전·물자 문서를 중심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한다. 첫째는 해당 문서들의 연도별 추세를 통한 상호운용성 노력 양상의 분석이다. 둘째는 AAP-03를 기준으로 문서를 물자·작전으로 분류해 상호운용성 내용의 추세를 분석한다. 비공개 문서가 많아 전체의 구체적 내용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Long Title에 나타나는 양상을 R 함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형

11) AJP-3, op. cit., Annex D: STANAG and STANREC Templates, p. C-3.

12) Ibid., 2.4.2항, p. 22.

13) AAP-03, op. cit., 1.4항, p. 6.

태로 이루어진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들을 자연어 처리 방식(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이용하여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 내는 분석 방법이다. 개별 표준화 문서의 주제어는 하위 주제들로 보완 되는데 이 하위 주제들은 다른 문서에서 주제어로 기능하면서 상호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주제어와 하위 주제어들의 분포 양상은 전체 문서의 지향성, 추세, 초점을 드러낸다. 텍스트 마이닝은 이런 분석에 적합하다.

3) 작전 교리 문서의 제한적 정량·정성 분석

교리 작전 문서를 별도로 분석하는 이유는 나토의 작전 구조와 한국 연합사의 구조가 미국을 매개로 유사할 뿐 아니라,¹⁴⁾ 한국이 추진하는 미래형 연합사령부의 작전에도 함의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물자 표준화 문서들은 상호 단절성이 크고 개별성이 강하지만 교리 작전 문서는 논리적 맥락에서 체계적이며 상호 연계되어 있어 의미 분석이 가능하며 교리가 포함된 Short Title AJP 항목의 공개율이 높다는 점도 실질 내용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 작전 교리 표준화 문서를 AAP-47가 제시하는 3작전 교리의 3개 수준인 레벨-1, 레벨-2, 레벨-3로 분류하고,¹⁵⁾ 이 가운데 레벨-1 교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단히 살핀다.

14) 유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서울: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 2007), p. 85.

15) NATO, AAP-47 'Allied Joint Doctrine Development,' 1.32항, (2019), p. 13.

II. 정량적기본분석

1. 전체 문서의 양상 및 유형

2021년 10월 현재 전체 표준화 문서는 1166개이다. 문서들은 STANAG, STANREC 및 Std의 상호 결합 방식에 따라 Cov+Std, Cov/std, No Cov/std 등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런 구별은 STANAG·STANREC가 Std의 내용을 제외한 표제(Cover, cov)로만 기능하거나 Cov 및 Std의 내용을 모두 담는 두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Cov+Std 형식은 표제와 표준이 하나로 융합된 문서다. 이들 문서는 표제와 표준을 평균 6-7쪽의 제한된 문서에서 담는다. 전체 분량이 적어 다루는 내용도 적다. 이런 문서는 주로 물자, 부품, 전술, 군수 등 제한된 단일 주제를 다룬다. 2021년 10월 기준 일련 번호 1-296의 문서가 이런 형식이다.

Cov/Std는 표제에 표준이 첨부된 형태로 실제 내용은 Std가 풍부하게 다룬다. No Cov/std는 STANAG나 STANREC 없이 Std만으로 존재하는 문서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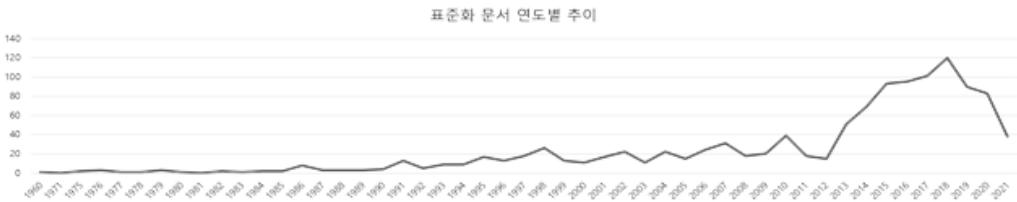
표준화 문서는 2013년 이후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석 기간 전체를 냉전기, 냉전 전기(2012년 이전) 냉전 후기(2013년 이후)로 구분하면 문서 양상과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인다. (시기 구분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냉전기 문서는 53건(5%), 탈냉전 전기(2012년 이전) 373건(52%), 탈냉전 후기 740건(63%)이다. (<표-1>, <그림-1> 참조)

<표-1> 구간별 표준화 문서 추이

구간	문서 수	비중(%)
냉전기	53	5
탈냉전 전기(2012년 이전)	373	32
탈냉전 후기(2013년 이후)	740	63

(출처=저자 작성)

<그림-1> 표준화 문서 연도별 추이



(출처=저자 작성)

2. Std(Short Title) 양상

1) 전체 양상

Std를 별도로 통계 분석하는 이유는 STANAG·STANREC에 다수의 Std가 첨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나토 표준화 문서의 의도를 더 깊이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Std의 존재 양식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Cov+Std와 Cov/Std 두 방식이다. 2021년 10월 기준 전체 문서 가운데 Cov+Std는 일련번호 1-295 문서이며 일련번호 296번 이후 문서에 77개 카테고리로 대분류된 Std가 부속된다. Std 존재 유형, 카테고리 및 현황은 <표-2>와 같다.¹⁶⁾ 2012년과 2013년을 경계로 Std의

16) 표준화 문서가 약자의 원문을 늘 제공하지는 않는다. 공개 매체에서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확인불가로 표기한다.

양상이 급변한다.

〈표-2〉 Std 대분류와 개수

	Std 분류 (약자)	Std 정식 명칭	문서수				
			전체	2012 까지	2013 이후	증감 비	공개
0		문서번호 1-296. Cov와 Std가 융합된 형태	295	248	47	0.19	37
1	AACP	Allied armament co-operative publication	3	1	2	2	2
2	AAEP	Allied Aircraft Electric and Electromagnetic Considerations Publication	4	0	4	신설	2
3	AAGSP	ASSIGNMENT OF NATO CODE NUMBERS TO GASES USED IN AIRCRAFT CROSS SERVICING	12	0	12	신설	4
4	AAITP	Allied Automatic Identification Technology Publication	8	1	7	7	1
5	AAMedP	(Allied) Aerospace medicine doctrine (Publication)	24	0	24	신설	19
6	AAP	Allied administrative publication	18	9	9	1	7
7	AArtyP	Allied artillery publication	5	1	4	4	1
8	AAS3P	Allied Safety and Suitability for Service publication	6	0	6	신설	0
9	AASSEP	Allied Aircraft Servicing and Standard Equipment Publication	9	0	9	신설	8
10	AASTP	Allied ammunition storage and transport publication	4	3	1	0.33	2
11	AATCP	Allied Air Traffic Control Publction(추정)	2	0	2	신설	0
12	AATMP	Allied Air Traffic Managemant Publication	16	1	15	15	1
13	AAVSP	Allied avionics publication	4	0	4	신설	2
14	ACCP	Allied combat clothing publication	2	2	0	0	0
15	ACIEDP	Allied Countering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Publication(추정)	2	0	2	신설	0

16	ACMP	Allied configuration management publication	2	0	1	신설	2
17	ACodP	Allied codification publication	3	2	1	0.5	0
18	AComP	Allied communications publication	20	1	19	19	0
19	ADatP	Allied Data Publication	18	10	8	0.8	3
20	ADivP	Allied Dive Publication	7	0	7	신설	0
21	ADMP	Allied Dependability Management Publication	1	0	1	신설	0
22	AECP	Allied environmental conditions publication	2	0	2	신설	0
23	AEDP	추정불가	17	6	11	1.83	12
24	AECTP	Allie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ests publication	9	1	0	0	9
25	AEngrP	Allied combat engineer publication	1	0	1	신설	1
26	AEODP	Allie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publication	11	0	11	2.61	0
27	AEP	Allied engineering publication(추정)	131	37	94	2.54	34
28	AEPP	Allied engineering practices publication(?)	3	1	2	2	1
29	AETP	Allied engineering documentation publication	17	5	12	2.4	0
30	AFAP	추정불가	5	0	5	신설	1
31	AFinP	Allied Financial Publication	1	0	1	신설	1
32	AFLP	Allied fuels logistics publication	35	3	32	10.67	0
33	AFP	Allied fuel publication	2	0	2	신설	1
34	AFPP	추정불가	1	0	1	신설	1
35	AFSP	Allied Flight Safety Publication	10	1	9	9	4
36	AGeoP	Allied geographic publication	13	2	11	5.5	10
37	AHP	Allied hydrographic publication	11	0	11	신설	6
38	AIntP	Allied intelligence publication	13	0	13	신설	0
39	AJEPP	Allied Joint Environmental Protection Publication	5	0	5	신설	5
40	AJmedP	Allied Joint Medical Planning Doctrine	9	0	9	신설	8
41	AJP	Allied joint publication	53	4	49	12.25	29
42	ALCCP	추정 불가	1	0	1	신설	1

43	ALingP	Allied Linguistic support for Operation	1	1	0	0	1
44	ALogP	Allied Logistic Publication	1	0	1	신설	1
45	ALP	Allied logistic publication	9	1	8	8	3
46	AMaintP	Allied Maintenance Publication(추정)	1	0	1	신설	1
47	AMedP	Allied medical publication	61	2	59	29.5	53
48	AMEPP	Allied maritime environmental protection publication	5	5	0	0	0
49	AMETCOP	Allied Meteorological and Oceanographic Publication(추정)	4	0	4	신설	0
50	AmovP	Allied Movement Publication	6	5	1	0.2	1
51	AMP	Allied mine warfare publication	43	33	10	0.3	0
52	AMSP	Allied Modelling and Simulation Publication	5	0	5	신설	4
53	AMWDP	Allied Military Working Dog Publication(추정) 군견	1	0	1	신설	0
54	ANEP	Allied naval engineering publication	77	55	22	0.4	9
55	ANP	Allied navigation publication	2	0	2	신설	2
56	AOP	Allied ordnance publication	61	17	44	2.59	34
57	APersP	Allied Personnel Publication	1	0	1	신설	1
58	APP	Allied procedural publication	21	1	20	2.0	3
59	APRP	Allied Personnel Recovery Publication	9	0	9	신설	3
60	AQAP	Allied Quality Assurance Publication	9	0	9	신설	3
61	ARAMP	Allied Risk Assessment Management Publication	1	0	1	신설	1
62	ARSP	추정 불가	5	0	5	신설	0
63	ASCP	Allied Strategic Communications Publication(추정)	1	0	1	신설	0
64	ASIP	추정 불가	1	0	1	신설	0
65	ASP	Allied Spectrum Publication(추정)	2	0	2	신설	0
66	ATDLP	Allied Tactical Data Link Publication(추정)	12	0	12	신설	0
67	ATP	Allied tactical publication	95	6	89	14.83	12
68	ATrainP	Allied train Publication	6	0	6	신설	5

69	AUIDP	Allied Unique Identification Publication	1	0	1	신설	1
70	AVPP	추정불가	2	1	1	1	1
71	AVTP	추정불가	1	1	0	0	1
72	AXP	Allied exercise publication	8	3	5	1.67	0
73	MACP	Allied acquisition practices publication	1	0	1	신설	1
74	MMP	Allied Mine Production(추정)	2	1	1	1	0
75	MPP	Allied/Multinational Procedural Publication	10	0	10	신설	3
76	MTP	Allied Tactical Publication	3	0	3	신설	0
77	MXP	Allied Exercise Publication	2	0	2	신설	0

(출처=저자 작성)

2) Std의 수직·수평적 양상

(1) 수평적 양상

수평적 양상은 Std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말한다. 하나의 문서로는 다룰 수 없을 만큼 이슈가 세분화·심화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상호 운용성을 위한 대주제가 늘어나며 해당 카테고리가 급증하는 양상이 이를 의미한다. 77개 Std 카테고리 가운데 2013년을 경계로 늘어난 (증가비>1) 항목은 63개다. 이 가운데 신설은 43개 항목이다.

수평적 분화를 보여주는 신설항목은 AAEP(항공기 전자 및 전자 마그네틱), AAGSP(항공기 연료관련 암호), AAMedP(항공 의학 교리), AAS3P(안전 및 적합성), AASEP(항공 서비스와 표준 장비), AATCP(항공 교통통제), AAVSP(항공음향), ACIEDP(사제폭탄 대응), ACMP(형상관리) ADivP(공수), ADMP(의존성 관리), AECP(환경 조건), AEODP(폭발물 처리), AFinP(재정) AFPP(확인불가), AHP(수

력), AIntP(정보) AJEPP(환경보호), AJmedP(합동 의료 기획 교리), ALCCP(확인불가), AMaintP(유지정비), AMETCOP(Meteorological Oceanographic), AMSP(모델링과 시뮬레이션), AMWDP(군견), ANP(네비게이션), APersP(인사), APRP(인력 회복), AQAP(품질 보증), ARAMP(리스크 평가 관리), ARSP(확인불가), ASCP(전략 통신), ASIP(확인불가), ASP(스펙트럼), ATDLP(전술데이터링크), ATrainp(열차), AUIDP(확인불가), MACP(다국적 조달), MPP(다국적 절차), MTP(다국적 전술), MXP(다국적 연습)이다, 대부분은 비밀로 분류돼 있다.

(2) 수직적 분화

한 대주제에 포함된 문서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2012년까지의 문서 총계보다 100% 이상 늘어난 항목 가운데 신설항목을 제외하면 AAITP(자동식별기술), AAP(행정), AArtyP(포병), AATCP(동맹항공 교통통제), AComP(통신), AEDP(공병 문서화), AEP(공병), AEEP(수송포장), AFLP(연료), AETCP(환경조건), AEtP(확인불가), AFSP(비행안전), AGeoP(지리출판), AJP(연합 교리), ALP(군수), AmedP(의료), AOP(탄약) APP(절차), ATP(전술), AVPP(확인불가), AXP(연습), MMP(지뢰대책) 등이다. AATMP는 무려 1500% 늘었다.

이 가운데 나토의 팽창, 그리고 다국적 무기 및 장비 플랫폼이 확대됨에 따라 회원국 내 인력·물자의 빈번한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AAITP, 물자 이동을 위한 포장과 관련된 AEPP 등은 한국이 추구하는 전작권 전환에 필수인 군사 능력의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시를 대비하는 한미동맹에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AComP는 현대 네트워크중심전

(Network Centric War, NCW)에서 핵심 기술적 요소인 전술데이터 통신망(Tactical Data Link, TDL)에 필수적인 문서다. 공병과 관련된 AEP는 전쟁의 경우 공병이 필수라는 점에서, AFSP는 전시 항공관리를 위해, AGeoP는 전장 정보 확보와 TDL의 데이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동맹 합동 교리를 다루는 AJP는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 군수를 다루는 ALP, 세부 전술을 다루는 ATP 등도 필요하다. 이들 문서의 대부분이 비밀로 분류돼 내용 파악은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급증한 나토 표준화 문서는 전쟁에 직면한 동맹의 필요한 군사능력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체 문서 및 Std 급변의 이유

<그림-1>과 <표-2>에 나타난 표준화 문서의 급변 양상은 크게 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총체적 위협의 강도 변화와 표준화 문서의 증감을 연관시키는 해석이다. 소련-러시아로 이어지는 나토에 대한 총체적 위협이 강화되면서 나토 내 유럽 국가들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는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표준화 문서 생성 확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 추정이 합리적이라면 문서는 동서진영의 대결이 극심했던 기간 최대가 되고, 탈냉전 초기 완화됐다가, 러시아의 위협이 강화되는 시기에 맞춰 문서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홈페이지가 공개하는 냉전 시기 표준화 문서의 수는 극히 적다.

총체적 위협의 확대에는 나토 역내 무력 갈등인 보스니아 전쟁(1992-1995) 코소보 사태(1996-1999), 나토의 역외 위기(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사태)등이 포함된다. 이런 위협이 작전의 빈도를 늘리고

상호운용성의 필요성을 높여 표준화 문서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림-1>과 <표-3>이 제시하듯 상관관계는 미미하다. 따라서 위협 변화와 표준화 문서의 증감을 연계하는 해석은 타당성이 적어 보인다.

둘째, 나토 확대와의 연관성이다. 1949년 12개 회원국으로 출발한 나토는 1952년 그리스와 터키, 1955년 독일, 1982년 스페인으로 16개국의 동맹체가 됐다. 탈냉전 이후에는 2020년까지 5차례의 회원 확장이 있었다. 1999년 1차로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가입했고 2004년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2차 확장으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가입했다. 2009년 3차로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17년 4차 확대로 몬테네그로, 2020년 5차로 북마케도니아가 가입해 현재 30국이다. 회원국의 증가가 상호운용성 문제를 일으켰고 따라서 표준화 문서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된 변화는 볼 수 없다.

세 번째 관점은 위협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표준화 문서가 발표됐고 현재의 표준화 문서는 나토의 현재 필요성을 담은 문서라는 해석이다. 시기에 따라 나토가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이 변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문서는 폐기하고 새 전략에 부응하는 문서들만 발표된다는 해석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현대의 나토는 소련을 대체한 러시아의 위협에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전 문서의 효용은 떨어지고 새 위협에 대처하는 문서가 최근으로 올수록 늘어날 것이다.

우선 최근 위협으로 러시아의 군사력 현대화를 꼽을 수 있다.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러시아는 본격 군 개혁에 나섰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¹⁷⁾ 군 개

17) 윤지원, “러시아 국방개혁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성에 대한 고찰: 푸틴 4기 재집권과 국가안

혁은 「국가무장계획 2011-2020」 및 「국방개혁 2018-2027」의 틀에서 진행됐고 재래식 군사력과 핵전력 모두 현대화되고 강화됐다.¹⁸⁾ 나토는 현대화된 러시아의 강화되는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능력을 첨단화해야 했고 이런 노력은 표준화 문서의 필요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토는 러시아의 최근 위협에 바로 대응하지 않았고,¹⁹⁾ 2010년 초반 느리게 시작됐다. 2014년 1월 나토 사무총장이 발표한 2013년 연례 보고서는 2010년대 초반 이후 나토의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나토는 핵심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리스본 회담에서 21세기 도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2년 시카고 정상회담에서 동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역량 획득에 협력하는 스마트 방어 사고방식을 채택했다. 정밀 유도탄에서부터 해상 초계기에 이르기까지 29개의 서로 다른 역량 영역에서 협력해 왔으며 두 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또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 우리는 2013년 필요한 영역의 안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와 협력했고, 공동 작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다.”²⁰⁾

그러다가 크림·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14년 9월 웨일즈 나토 정상회담에서 '전투태세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 (Readiness Action Plan, RAP)에 합의함으로써 대응 기조를 바꿨다. RAP엔 적응조치

보 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집 3호, (2018), p. 86.

18) 김규철, “러시아의 군사전략: 위협 인식과 군사력 건설동향,” 『군사논단』 100권 특별호, (2020), pp. 311-343.

19) 안성규, “러시아의 탈냉전기(1992-2016년) 군사적 공세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pp. 227-235 참조.

20) NATO, Secretary General's Annual Report 2013, (2014)

https://www.nato.int/cps/en/natolive/opinions_106247.htm(검색일: 2021.8.21).

(Adaptation measure), 보장조치(Assurance measure) 두 유형이 포함된다.²¹⁾

적응조치는 나토 군사력 자체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3개 조치다. 러시아의 위협이 본격화된 2013년까지 평시 및 위기·분쟁 시 나토 군사력의 주력은 나토 대응군(NATO Reaction Force, NRF)이었다. 2002년 베를린 플러스 합의에서 합의된 NRF 내에는 즉각대응군(Immediate Reponse Force, IRF)이 편재됐다. 그런데 IRF는 반응 속도가 느리며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NRF 역량 강화를 위해 13,000명 규모를 40,000명으로 늘리고 그 중 20,000 지상군 병력으로 선봉 군사력(Very High Readiness Joint Task Force, VJTF)을 만들었다. VJTF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48시간 내에 배치해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 5000여 명 규모의 상비 군사력이다. 군사력은 회원국 기여로 구성되며, 당해연도 군사력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가 주도국(Framework Nation, FN)으로 VJTF를 지휘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 등의 7 개국이 1년씩 돌아가며 FN이 된다.

전진 배치 강화군사력(enhanced Forward Presence, eFP)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러시아와 접한 동북지역 국가에 전단으로 배치된 다국적 군사력이다. 웨일즈 정상회담에서 결정됐고, 2016년 10월 26일 동맹 국방 장관 회담으로 구체화 됐다. 전투단은 영국, 캐나다, 독일, 미국이 각각 주도하는, 개별국 기여에 기초한 다국적 부대다.

북동 전선 다국적 군사력(Multinational Corps Northeast, MCN)

21) NATO, Readiness Action Plan, (2021)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119353.htm (검색일: 2021. 10. 25).

도 나토에 편입됐다. MCN은 1999년 덴마크, 독일, 폴란드의 합의로 가동됐다. 초기 목표는 3국 간의 협력 강화였으나 2014년 이후 지상군 사령부로 나토의 동북 측면을 책임 방어한다.

보장조치엔 전투기 공중 순찰 강화, NATO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동맹 동부 지역에 지상군 순환 배치, NATO AWACS의 동부 동맹국 영토 비행, 동부 국경 따라 해상 항공기 순찰 비행, 상시 NATO 해양 그룹 및 NATO 기뢰 대응 조치 그룹과 함께 발트해, 흑해, 지중해의 NATO 해양 순찰 강화, 몇몇 동맹은 양자 훈련을 위해 동유럽에 군대 파견·위기관리 및 집단 방어에 초점을 맞춘 훈련 증강 등이 포함된다.

또 동유럽 동맹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소규모 다국적 나토 군수 본부 (NFIU)설립, 루마니아 남동부에 새로운 다국적 사단 본부 설립, 동부 동맹국 영토에 군사 물자 사전 비치, 비행장, 항구와 같은 인프라 준비를 통해 동유럽 동맹국을 강화하는 NATO능력 향상, 주둔군사력 지원을 위해 새로운 공동 물류 지원 그룹 본부 설립 등이 포함된다.

이런 조치를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강화가 필수다. VJTF, eFP, MCN 모두 다국적 부대로 효율적 운용을 위해 상호운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VJTF엔 나토 회원국 외에 바르샤바조약기구(WTO) 소속 국가였던 폴란드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eFP 주도국은 나토 주요국들이지만 이들 국가 군사력이 주둔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은 구소련 권 국가들이다. 해당 국가의 주력이었던 구소련 무기 체계는 서방의 무기로 교체되고 아울러 작전 개념도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3년 이전까지 표준화 작업은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필

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²²⁾ 결국 나토는 러시아 위협 강화에 대한 대응을 미루다가 크림·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대응을 강화하는 상황이 표준화 문서의 수직·수평적 급증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표준화 문서의 일몰(日沒) 방식도 적응성을 잃은 과거 문서는 폐기되고 현대적 상호운용성을 담은 문서가 채택돼 공개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²³⁾ 이런 양상은 한미 연합체제의 현재·미래 대비의 적응성 및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Long Title의 제한적 정량 · 정성 분석

1. AAP-03 기준에 따른 분석

1) AAP-03 기준

표준화 문서 AAP-03는 ‘나토 표준화 문서의 생성,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표준화 문서의 일체를 다룬다. 문서는 당국(TA), 위임당국(DTA), 실무그룹(WG), 관리자(Custodian), 동맹국, 파트너 국가, NATO 기관 및 NATO 표준화 문서 작성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AAP-03에 따르면 나토 표준화 문서는 3개 범위에서 생산된다.²⁴⁾

22) 자세한 내용은 안성규 · 이상호, “나토의 군사 합동성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에 미치는 함의,” 『국가정보연구』 제13권 2호, (2020), pp. 33-72 참조.

23) 일몰 방식의 예는 <별첨-1: 교리 표준화 문서> 참조.

24) AAP-03, op. cit., 1.4항, p. 6.

- * 작전적 표준화: 군수 물자, 시설 조직 또는 군이 기능이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념적, 조직적 또는 방법론적 요구 사항을 지정한다.
- * 물적 표준화: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물자(materiel)에 대한 일반적 기술 요구 사항을 지정한다.²⁵⁾ 물자는 상담, 지휘 및 통제(C3) 시스템, 무기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 인터페이스, 조립, 구성 요소, 예비 부품 및 탄약, 연료 및 소모품을 포함한 시스템, 보급품을 포괄한다.
- * 행정 표준화: 용어, 재정, 인적 자원 및 군 계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행정을 용이하게 하는 표준화 문서다.

2) AAP-03 분류에 따른 양상

1. 전체 양상

분석 대상은 Std의 Long Title이다. 이 기준에 따른 Long Title은 물자 678개, 작전 544개, 행정 44개, 기타 2개다. 등록된 표준화 문서의 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의 STANAG에 복수의 Std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TANAG 1116 ‘핵군 기뢰전 정보 및 데이터 이전을 위한 스펙’에는 29개의 Std 문서가 결합되지만 등록 번호로는 1개 STANAG가 된다.

<표-3>은 물자, 작전, 행정 std의 전체 수다. 물자와 관련된 표준화 문서가 전체 Std의 54%다. 이는 2014년 RAP 조치로 늘어난 회원국 사

25) 원문은 Materiel인데 합참 한글용어사전에 따라 물자로 번역한다.

이의 물자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전 Std가 물자 못지않게 많은 것은 늘어난 회원국을 상대로 한 RAP 때문이다. 신규 회원과 구 회원국 사이의 작전 개념, 방식 등이 다르고 따라서 공동 작전을 위한 상호운용성이 물자의 상호운용성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3> 물자와 작전, 행정 Std 수

	물자	작전	행정	기타
Std	692	544	45	2
비율(%)	54	42	4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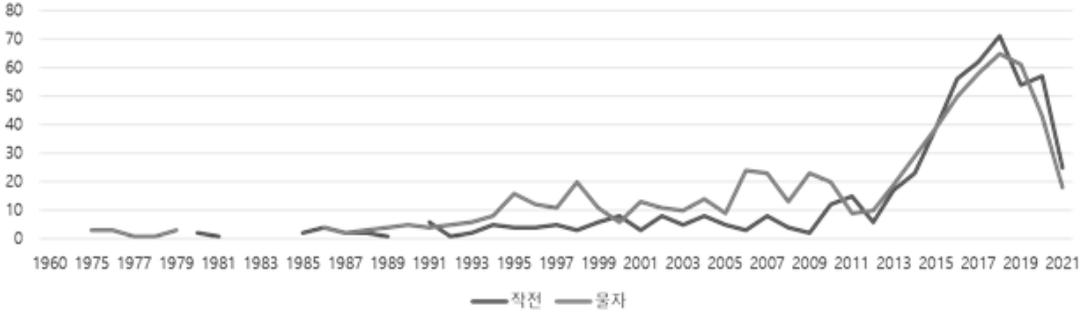
2. 물자와 작전 Std의 특징

<그림-2>는 물자와 작전 관련 표준화 Std의 양상을 보여준다. 두 문서 모두 최근 시점에 가까울수록 많은 것은 전체 문서의 양상을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물자 관련 문서가 많지만 이런 추세는 2013년을 전후로 크게 바뀐다. 이후로는 작전 문서가 물자 문서를 웃도는 경향도 나타난다.

2013년 기준 변화 양상은 <표-4>와 같다. 물자의 경우 냉전기를 포함 2012년 이전의 관련 표준화 문서는 312건인데 2013년 이후 382건으로 120% 늘었다. 그런데 작전의 경우 이전 기간의 총계는 140건인데 비해 2013년 이후에는 404건으로 290% 늘었다.

〈그림-2〉 물자-작전 문서 변화 추이

물자-작전 문서 변화 추이



출처: 저자 작성

〈표-4〉 AAP-03에 따른 물자-작전 std의 추이

	1960	1971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물자문서	1		3	3	1	1	3			2
작전문서		2						2	1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물자문서	0	2	0	4	2	3	4	5	4	5
작전문서	1	0	2	4	2	2	1		6	1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물자문서	6	8	16	12	11	20	11	6	13	11
작전문서	2	5	4	4	5	3	6	8	3	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물자문서	10	14	9	24	23	13	23	20	9	10
작전문서	5	8	5	3	8	4	2	12	15	6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물자문서	19	29	39	50	58	65	61	43	18	
작전문서	17	23	39	56	62	71	54	57	25	

출처: 저자 작성

2. 구간별 텍스트 마이닝

1) 전체 비교

2013년을 전후로 표준화 문서의 주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알아본다. 마이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66개 Long Title의 한글 번역 및 분석을 위한 텍스트화다. 한글 텍스트 분석을 위해 영어로 돼 있는 Long Title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한 파이썬 패키지(KoNLPy)를 이용하여 한글 텍스트화 된 Long Title을 형태소별로 분류하고 무의미하거나 분석에 큰 의미가 없는 형태소를 제거하는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거쳤다. 무의미한 형태소란 명사 뒤에 붙는 조사, 접속사, 동사의 어미, 문자가 아닌 특수문자 등이다. 이런 작업을 하면 명사, 동사의 어근, 형용사의 어근 등이 남는데 여기에서 다시 분석에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제거했다. 예를 들어 나토와 같은 단어들이다. 이를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로 나누고, 2회 이상의 빈도를 보인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²⁰를 통해 시각화했다

아래 <그림-3>는 전체 Wordcloud다. 2회 이상 출현한 단어의 빈도에 차이가 있다. 2012년

이전에는 313단어가 대상이었지만 2013년 이후에는 429개 단어가 됐다. 2013~2021년 9년 사이에 나타난 단어의 수가 1962~2012년 구간 단어보다 더 많다. 최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박하게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현실화됐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등장하는 단어의 내용의 차이이다. 2012년 이전 Wordcloud에서 두드러진 빈도의 단어는 장비, 설계, 안전, 기뢰, 데이터처럼 물적 요소 및 플랫폼 등 하드웨어와의 관련성이 많다. 작전, 전

<그림-3> 2012년 이전(좌)과 2013년 이후(우)의 작전 문서 Wordcloud



출처: 저자 작성

술 같은 소프트웨어 계통의 용어는 후 순위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중심 단어는 작전, 합동성, 교리 등이다. 이런 차이는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화 문서의 강조점이 물자에서 작전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밖에 2014년 이후 Wordcloud는 의료, 핵 화생방 같은 단어가 더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 역시 작전 관련 용어로 전쟁 가능성이 심각히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개별 부문 비교

(1) 작전 부문.

<그림-> 2012년(좌) 이전과 2013년(우) 이후의 전체 문서 Wordcloud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 물자 표준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상황을 아래 <그림-4>가 제시한다. 2회 이상 출현한 단어는 2012년 이전

106개, 2013년 이후 227개다. 2013~2021년 9년 사이 표준화 문서의 범위에 포함된 단어의 수가 1962~2012년 사이 표준화 문서에 나타난 단어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단기간에 앞선 기간보다 훨씬 긴박하게 작전 부문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현실화됐다는 의미다.

<그림-4> 2012년(좌) 이전과 2013년(우) 이후의 물자 문서 Wordcloud



출처: 저자 작성

다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의 내용 차이다. 2012년 이전 문서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단어는 기뢰전(28), 파일럿(24), 작전(15), 데이터(13), 정보(10) 등이다. 2013년 이후엔 작전(74), 교리(873), 합동(73), 의료(42) 정보(34), 전술(29) 등으로 판도가 달라졌다. 이런 차이는 작전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의 초점이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물자 부문.

① 전체 경향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 물자 표준문서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상황을 아래 <그림-5>가 제시한다. 2회 이상 출현한 단어는 2012년 이전

번호 1-295에서의 사례다.

Cov+Std 형태인 이 구간의 STANAG는 하나의 문서에 Cover 문서가 다를 내용과 Std의 내용이 융합돼 있다. 이런 양식은 냉전 이후 오늘날 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술적 주제를 중심으로 사용되며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분량도 많지 않다. 예를 들어 STANAG 4368(35 쪽) '로켓과 유도 미사일 점화 시스템, 안전 설계 요구 사항'은 비핵무기에 사용되는 고체연료 모터 로켓이나 유도 미사일의 점화 시스템을 위한 안전 설계 요구 사항을 표준화한다. 이 합의는 비준 이후 새로 개발된 설계에도 적용된다. 예외는 핵무기 등 4개 항이다. 순전히 기술적인 내용이다. 이 밖에 주요한 STANAG의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표-5〉 주요 STANAG

STANAG 번호	쪽수	문서 제목
4423	23	대포탄(12.7~40mm)-사용 평가를 위한 안전 및 적합성
4491	31	폭발물: 차별적 열 분석(DTA), 차별적 스캐닝 열량측정(DSC), 열중량분석(TGA)를 사용한 열법(thermal) 분석
4507	18	폭발물, 긴장상태에서 물리·기계적 자산의 스트레스 이완 시험
4515	41	폭발물: 차별적 열분석(DTA), 차별적 스캐닝 열량측정(DSC), 열중량분석(TGA)을 사용한 열법(thermal) 분석
4517	59	대구경 폭발물/탄약(ordnance/munition) 호환성, 설계 안전 요구 그리고 서비스 평가를 위한 안전 및 적합도
4581	46	폭발물: 비활성 바인더(Inert binder)를 내장한 합성 추진체의 노후 특성 평가
4608	29	S-3 사용 평가를 위한 12.7mm 구경 이하 탄약-설계 안전 요구 및 적합성
4666	57	폭발물, 폴리머 본드 폭약의 평가, 관성 혹은 에너지 함유 결합체를 쓰는 cast-cured 컴퍼지션
5066	401	고주파 무선 데이터 통신을 위한 프로파일

출처: 저자 작성

IV. 작전 교리문서의 제한 정량·정성분석

1. AAP-47에 따른 교리 분류

AAP-47는 교리를 레벨-1, 레벨-2 및 레벨-3으로 구분한다.²⁶⁾ 레벨-1 교리는 캡스톤(Capstone)과 키스톤(Keystone) 교리로 구성된다. Capstone 교리는 AJP-01 '동맹연합교리'로 동맹 전략과 연합 교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판물이다. Capstone 교리는 나토 작전 교리의 근본 문서다. 한국 합참의 한글용어 사전에 따르면 Joint Capstone Doctrine(합참 번역 合同基本敎理)은 최상위 군사교리로서, 합동기준교리와 합동운용교리 및 각 군 교리에 군사력 운용의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공한다.²⁷⁾ Keystone 문서는 동맹연합교리구조(Allied Joint Doctrine Architecture, AJDA)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연합 교리(정보, 작전, 군수(의료 포함), 기획 및 통신)에 대한 기반을 수립한다. 합참 사전에 따르면 Joint Keystone Doctrine(합참 번역 合同基準敎理)는 '합동참모본부의 편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분류한 교리로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제 요소들의 노력과 효과의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며 합동기본교리를 근거로 작성된다'고 정의된다. 기본 내용은 같지만 나토는 연합에, 합참은 국내 작전 위주인 합동적 성격에 초점을 둔다. Keystone 문서는 정보, 작전, 물류(의료 포함), 기

26) NATO, AAP-47, Allied Joint Doctrine Development, 1.32항, (2019), p. 13.

27)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한글 용어사전에 따르면 Joint Doctrine은 합동교리다. 합동교리는 한 나라에서 2개 군 이상의 군사력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으로서, 연합기본교리, 연합기준교리, 연합운용교리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 사전에 따르면 합동은 한 나라 내의 작전을 연합은 다른 국가와의 작전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나토 문서에 사용되는 Joint Doctrine의 번역 문제가 발생한다. 나토가 다국적 국가의 작전을 다루므로 한국 합참의 용어는 적당치 않다. 그런데 사전은 Allied Joint을 연합으로 번역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lied Joint Doctrine을 연합 교리로 번역해 사용한다.

획 및 통신에 대한 교리 기반과 관련된다. Capstone 문서와 Keystone 문서는 <표-6>과 같다.

<표-6> 레벨-1 교리와 관련된 STANAG와 Std

교리 종류	STANAG 번호	Std종류와 번호 및 제목
Capstone	2437	AJP-01: 동맹 합동 교리
Keystone	2190	AJP-2: 정보, 카운터 정보, 보안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490	AJP-3: 작전 수행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182	AJP-4: 군수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526	AJP-5: 작전 기획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525	AJP-6: 통신 정보 시스템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번호 없음	AJP-10: 2022년 5월 현재 개발중.

레벨-2 교리는 작전 수준에서 특정 기능 영역 및 주제에 대한 교리로 Capstone·Keystone 교리의 하위 문서다. 이 교리를 담은 출판물은 제목에 STANAG외에 AJP라는 Short Title이 포함된다. 이 수준의 교리는 작전 수준에 초점을 맞추며,²⁸⁾ 레벨-1과의 연관성을 일련번호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지상 작전을 위한 연합 교리 문서는 AJP-3.2, 항공 및 우주 작전을 위한 연합 교리는 AJP-3.3으로 Keystone 교리인 AJP-3의 하위 문서임을 밝힌다.

레벨-3 교리엔 AJP를 지원하고 향상하는 전술, 기술 및 절차 수준 연합/단일 서비스 교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간행물은 동맹 간행물로 연합 교리 구조(Allied Joint Doctrine Architecture, AJDA)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DTA는 발행물의 번호 기준으로 AJDA 번호 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 동맹국 간행물의 번호 설정에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주제 관련 동맹 간행물 간의 수적 관계가 창출된다. 예를 들어, 레벨-3 동맹 교리 출판물은 일반적으로 논리적 흐름에 번호가 설정돼

28) AAP-47, op. cit., 1.4항, p. 2.

있다. Level-3 교리엔 AJP를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전술, 기술 및 절차 수준의 연합·단일 서비스 교리가 포함된다. 이들은 동맹 간행물로 분류되며 AJDA에 나타나지 않는다.

2. 교리 양상

나토의 작전 표준화 문서가 늘어난 것과 비례해 작전 교리도 2013년 이후 급증했다. 2012년 이전의 작전 교리는 4개, 2013년 이후 최신 교리는 75개이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별첨-1〉 참조) 79개의 3개 수준 나토 교리 가운데 1962~2012년 교리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STANAG 7167 ‘공군 군수교리와 절차에 대한 보충 1’, STANAG 3736 ‘근접 항공지원 및 항공 차단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STANAG 3880 ‘대응 공군작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STANAG 2292 ‘나토 자산 가시화(Asset Visibility)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4개 뿐이다.

최종 발표 시점이 2013년 이후인 75개 교리는 신설되거나 이전 교리가 수정돼 새로 발표된 것이다. 연도별로 2013년 2개, 2014년 3개, 2015년 9개, 2016년 18개, 2017년 7개, 2018년 14개, 2019년 8개, 2020년 8개, 2021년 3개다. 2013년 이후 신설된 교리는 20개이며, 수정·보완 돼 새로 발표된 교리는 48개다. 2012년 이전의 교리는 사실상 폐기됐음을 보여준다. 교리는 장기적으로는 시대의 흐름, 단기적으로는 위협의 양상에 반응하는데 나토 교리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교리가 현재에는 의미를 상실하거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V. 한미연합과 표준화

한미연합체제의 상호운용성은 나토 수준으로 파악할 수 없다. 나토 수준의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갖춘 표준화 기구, 공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상호운용성을 위한 논의와 결과물이 있다 해도 나토 수준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우선 담당 기구가 불분명하다. 나토는 표준화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나토 최고의결기관인 북대서양위원회(NAC) 산하에 표준화 위원회(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S) 및 나토 표준화 사무소(NATO Standardization Office, NSO)와 같은 내부 기구를 두고 표준화를 끊임없이 논의하고, 정리하며, 합의한다.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교리 개발을 위해서는 작전최고사령부인 동맹지휘작전(ACO)과 동급의 동맹변혁사령부(ATC)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미 연합체제에는 이런 별개 체계가 없다. 미래전 수행개념과 교리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사항도 현재 한미 양국의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미 연합체제의 전·평시 작전 구분도 상호운용성의 확대·강화를 방해한다. 나토 연합군은 평시 훈련 및 연습, 위기 대응 작전 등으로 전·평시 구분 없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축적할 기회를 가지며 이는 표준화 문서 합의를 통해 개별 국에 전파되고 전시로 이어진다.²⁹⁾ 상호운용성을 위한 문서는 상시 제정·개정·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미 연합체제는 전시와 평시로 뚜렷이 단절되는 한국적 현상이 있다.³⁰⁾ 이에 따라 상호운용성의 확대 강화를 위한 일관성을 나토처럼 기대할 수 없다. 한미연합체제가 전시 외에는 연합체제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조치

29) 전·평시 구분 없는 나토의 작전 방식은 AJP-01, op. cit., 2.43-2.45항, pp. 2-20-2.21 참조.

30) 문정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무엇이 문제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58, (2015), p. 16.

를 취할 권리가 없다. 이를 훈련과 연습, 혹은 상호 협의로 보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평시 구분으로 위기 대응 수준의 실제적인 연합 작전은 불가능하고 가상 훈련만 가능해 연합 상호운용성의 강화 기회가 나토만큼 되지 못한다. 협의 체계를 가동한다 해도 나토의 공식 제도만큼 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한미연합사령관에 부여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다. 한미 동맹은 정전 시 연합사령관이 할 수 있는 CODA로 6개를 지정하고 있다. 이는 1)전쟁 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2)작전 계획 수립 3)연합 합동 교리발전 4)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연합정보관리 6)C4I 상호운용성 등이다.³¹⁾ 그 가운데 상호운용성과 연결된 내용은 *연합 합동 교리발전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이다. CODA는 전·평시로 구분된 체제로 인한 공백을 평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런데 CODA가 맡은 상호운용성 강화 기능은 불완전하다. 우선 나토처럼 상호운용성의 대상 전체에 걸쳐 적용되지 않고 영역이 제한된다. 그리고 연합사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별도 체제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연합체계의 상호운용성 문제가 나토만큼 중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 사실 CODA의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가 지적돼 왔다.³²⁾ 첫째, 위기 발생 시 한미가 각각의 국익에 따라 위기를 평가하게 돼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전시 작전계획 수립시 한미연합사와 합참 간에 협조 및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전·평시 지휘체계 이원화로 전시와 평시 작전계획 간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연합 합동 교리 발전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에 교리가 다른 부분이

3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7156&cid=42157&categoryId=42157>(검색일 2021. 10. 21).

32)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 127.

있어 연합 작전의 효율성 저해된다. 넷째, 연합정보관리, C4I 및 상호 운용성 등에 있어서 한미간의 능력차로 인해 연합작전의 효율성이 제한될 가능성 등이다. 이 가운데 셋째·넷째는 상호운용성과 직결된다.

결론적으로 한미연합사의 홈페이지, 합참 및 국방부 홈페이지 어디에도 연합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작업의 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CODA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연합 상호운용성도 나토처럼 중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나토 표준화 문서의 양상은 한미 연합사 체제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던진다.

첫째, 한미 연합체제의 상호운용성 태세 점검의 필요성이다. 나토의 표준화 문서는 한미 연합체제의 현재 및 미래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북한의 위협이 가속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체제는 나토 방식의 긴밀한 상호운용성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 1차적 함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도 높은 한미 훈련 형태로 상호운용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나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나토처럼 상비군을 유지하지 않는 가운데 한미 연합 군사력의 훈련·연습만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으나 연합 훈련의 빈도와 강도가 축소돼온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상호운용성은 더욱 취약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이후 표준화 문서 급증은 첨단화하는 위협에 대한 나토의 오늘과 내일을 대비한 준비태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는 오늘 한반도의 현실은 한미 연합체제에 즉각적인 함의를 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작권 전환 작업에 대한 함의다. 나토 연합군사력이 위협 앞에서 상호운용성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강화하는 추세에 견주어, 한국의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상호운용성 강화와 극대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함에도 이러

한 작업이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이 직면한 위협에 중국 및 러시아 등 외부의 위협이 추가되는 추세여서 나토 표준화 작업은 한미 연합체제의 위협 대비에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둘째, 작전과 물자 표준화 문서의 동시적 증가의 의미다. 한국은 군사주권과 전작권 전환의 측면에서 독자적 군사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나토의 작전 표준화 문서는 동맹의 회원국이라도 무기나 플랫폼의 성능 및 그에 따른 역량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연합 작전을 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강조한다. 서로 능력이 달라도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작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이 현재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 독자적인 무기 역량 강화만큼 한미연합체제의 작전 상호운용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위협도 늘어나며, 러시아도 중국과 한 진영처럼 행동하면서 한국에 안보적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추진되는 전작권 전환 작업은 특히 작전 관련 상호운용성 즉 작전 교리의 보완 혹은 강화를 요구한다. 한미가 다양한 경로로 협의하고 대응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나토처럼 분야별로 공식 합의된 교리가 있다면 동맹의 안보태세는 더 강해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자 표준화 문서에 나타나는 중심 단어들의 변화도 나토가 미래 위협과 미래전을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한미 연합체제가 주목해야 할 분야를 선제적으로 시사한다.

셋째, 한미 상호운용성 논의 수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식 절차나 기구의 필요성이다. 한미 간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상호운용성을 위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공식 절차는 지

속성과 유효성의 문제를 갖는다. 한미 연합체제의 관련 조직이나 기구는 나토처럼 강력하지도 않고 분산돼 있어 나토처럼 표준화 드라이브를 걸 만한 동력이 없다. CODA를 통해 관리되는 상호운용성의 대상 영역도 나토처럼 폭넓지 않고 제한돼 있다. 한미 동맹이 생산해 낼 표준화 관련 합의 내용도 표준화 체제가 제시하는 포괄적인 물적·작전적 상호운용성에는 크게 못 미치며 제한적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미 양국 군의 개념, 교리와 무기 및 장비 간의 연계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사시 군사 작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³³⁾

반면 공식 기구는 투명성과 합의의 견고성,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 공식 기구는 미국의 의사가 반영되는 통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통로도 될 수 있다. 상호운용성 문제는 상시 협의되고 수정될 수 있는 만큼 한미는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협의 테이블이 한국에 불리할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 나토에서 표준화 합의 문서에 서명한 당사국들에는 문서 전체나 부분에 대한 이행이 강제된다. 이행 강제를 위해 문서는 상호운용성 요구 사항과 합의 이행 항목을 두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군사주권에 대한 갈등을 해소한다. 서명한 이상 합의 내용에 대해 ‘군사주권’ 등의 이유로 반대할 수 없고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간에는 신중하게 상호운용성 문제를 협의할 수 있고 합의가 되면 서로 준수해야 하는 공통의 의무가 발생한다. 표준화 논의제도는 양국 간의 공정한 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군사주권 민감성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유용한 제도를 한국이 구축하는데 나토 NAC 산하의 CS 및

33) 박휘락, “나토와 한미 동맹의 군사지휘체제 비교: 지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군사학 논집』, (2019). p. 23.

ACT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CS는 합동성 및 비용 효과적인 군사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동맹 내 표준화와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다. 나토 사무총장이 의장을 맡으며 연 2회, 통상 NATO 본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정치적, 실무적으로 무게가 실린다. CS의 실무 담당 조직은 NSA(NATO Standardization Agency)인데 정책 조정 부서, 연합(joint)·육군·해군·공군 등 5개 영역으로 나뉘어 해당 영역의 표준화를 담당한다. 초점은 군 작전이다.³⁴⁾

ACT는 군사개혁 및 교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나토는 작전의 경우 나토최고사령관(SACEUR)을 중심으로 한 ACO가, 작전의 원칙과 발전은 ACT가 담당하도록 구분돼 있다. 2003년 설치된 ACT는 나토의 미래전 수행개념, 교리, 훈련 등에 있어서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유사시 지휘 통일 또는 노력 통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22년 현재 사령관은 프랑스의 공군대장이고, 부사령관은 독일 해군 대장, 참모장은 영국군 해군 중장이다.

결과와 내용도 최대한 공지하며 검증도 받는 투명성을 확보한 나토에서 합의를 찾아야 한다. 한미 연합 체제는 협의가 있는지, 진전된 결과가 있는지 등과 관련된 투명성이 없어 전문가들의 검증 대상이 되지 못한다.³⁵⁾ 따라서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 논의 절차, 합의 집행 및 모니터링이 나토처럼 공식화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공고화 수준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34) 안성규·이상호, 전계 논문, 참조.

35) 한미연합사 홈페이지 참조. <https://www.usfk.mil/About/Combined-Forces-Command/> (검색일: 2022. 1. 28).

VI. 결론

한미 연합체제에는 나토와 같은 상호운용성 시스템이 없지만 상호운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상호운용성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아도 문제를 공식화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후자라면 문제다. 실제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이 미 군사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라면 문제다. 한국군의 미군 의존에 대한 비판이 잦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글렌 스나이더(Glen H. Snyder)는 저서 『다극 국제 체제에서의 동맹』에서 동맹 내 상호작용(interaction)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며 상호작용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군사 준비 태세(preparedness), 외교(diplomacy), 군사행위(Action)를 제시하고, 각각 영역에서의 협력과 갈등 게임이 벌어진다고 제시했다.³⁶⁾

〈표-7〉 글렌 스나이더의 동맹 상호작용 게임의 양상

구분		군비 태세	외교	군사행위
동맹게임	협력	방위비 분담/합동 기획	지원 약속	공동 전쟁
	갈등	무임승차	탈퇴 협박	책임 전가

이 가운데 군비 태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나토와 한미동맹의 게임 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 양측의 표준화 문제만 본다면 강도가 높아지면 이는 협력, 반대는 갈등이다. 그런데 표준화를 위한 공식 협력 체계

36) Glen H. Snyder, *Alliance in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 34.

가 없거나 미흡하므로 최상의 협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갈등을 야기하는 무임승차 상태도 아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한미 협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운용성과 관련 한미 동맹게임은 ‘합동 기획-무임승차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이 미국에 편승하는 상호운용성 게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스테판 월트(Stephen Walt)에 따르면 편승은 약한 국가가 선택하는 전략이며, 랜덜 스웰러(Randall L. Schweller)에 따르면 편승은 ‘한 국가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위해’ 취하는 전략이다.³⁷⁾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보다 약하며, 미 군사력의 지원은 한국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표준화 대미 편승은 적절한 판단이다. 강력한 미 군사력이 한국 군사력에 편승할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군사주권과 작전권 전환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상호운용성을 갖추기 위한 공식 논의 요구가 들리지 않는 것은 편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군사주권과 작전권 전환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논의에는 적극적인 나토의 적극적 협력 게임과는 대비가 되는 부분이다. 국력과 위상이 한국보다 객관적으로 높은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미국 장성 주도 나토 작전권을 유럽 장성이 주도하는 작전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2014년 이후 오히려 현재의 집단안보체제는 더 강화됐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나토처럼 공식 기구를 통해 미국과 협력적 상호운용성 게임을 하는 것은 한미 연합체

37) Stephen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 (Spring, 1985), pp. 7-8.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Summer 1994), p. 93.

제의 오늘과 전작권 전환 뒤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 연합체제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전·평시 분리 체제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검토다. 6.25 종전 이후 한미연합사의 지휘권이 작전통제권으로 축소된 과정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³⁸⁾ 당시 해당 용어를 철저히 검토한 뒤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역사적 과정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전·평시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전·평시 분리 문제가 조정되면 나토 상비군과 유사한 한국형 상비 연합군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나토는 2022년 현재 4만 명 규모의 평시 상비군을 유지하며 전시에 확대된다. 4만 병력은 전시로 상호운용성을 확대하는 토대가 된다. 한국에도 이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창설된 한미 연합사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한미 연합사단에 한국군은 평시 참모진으로만 배속돼 있어 나토 방식의 연합군 사력이라고 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단은 단계적으로 확대·개편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초기엔 여단 규모로 기여해 운용하고, 2단계로 사단 규모의 군사력을 기여하는 것으로 확대하며 여기에 나토의 FN 방식으로 연합 부대 사령관을 임명해 상시적으로 상호운용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³⁹⁾ 그렇게 되면 나토와 같이 교육·훈련, 위기 대응, 전쟁 등에서 일관된 지휘 연속성을 갖게 되며, 제한된 훈련을 넘어 상시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나토의 표준화 위원회(CS) 같은 상설기구와 ACT 같은 교리 담당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연합 부대를 다년간 운용하면 한국군 지휘체제와 군사적 능력이

38) 안광찬, 전계 박사 학위 논문 참조.

39) 상세 내용은 안성규·이상호, 전계 논문, pp. 63-64 참조.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한미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한국의 동맹군 지휘 능력이 확보될 것이다.

나토 집단안보체제의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환경, 위협의 종류와 수준이 한미 연합체계의 그것과 다르므로 나토 표준화는 따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군사동맹으로서 보다 심층적이며 집단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나토의 표준화는 그 보편성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에 유용성이 있다. 두 안보체제에서 미 군사력이 주된 역할을 하며, 각 지역에 주둔한 미 군사력은 위기 시 서로의 지역으로 기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나토 수준으로 한미가 전략적 핵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요즘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의 연합체계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논의도 계속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나토 표준화 체계와 내용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Short Title		교리 제목(Long Title)	발표 일자 (마지막 날짜가 최종)
		STANAG	Std		
레벨 1	1	2437	AJP-01	동맹 합동 교리(Capstone)	1999-07-05, 2002-12-18, 2007-03-21, 2010-12-21, 2017-02-28.
	2	2190	AJP-2	정보, 카운터 정보, 보안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keystone)	2003-12-03, 2014-09-29, 2020-07-24.
	3	2490	AJP-3	작전 수행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keystone)	2002-09-09, 2007-07-02, 2011-03-16, 2019-02-11
	4	2182	AJP-4	군수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keystone)	2000-03-13, 2004-03-19, 2018-12-20.
	5	2526	AJP-5	작전 기획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keystone)	2013-06-26.
	6	2525	AJP-6	통신 정보 시스템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keystone)	2011-04-06, 2017-02-28
레벨 2	7	2191	AJP-2.1	정보 절차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2-09-17, 2005-09-22, 2016-06-06
	8	2192	AJP-2.2	방첩 및 보안 절차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1-12-06, 2019-01-15
	9	2537	AJP-2.3	HUMINT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8-07-24, 2013-06-06
	10	6504	AJP-2.4	SIGINT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6-07-11
	11	6507	AJP-2.6	이미지 정보(IMINT)를 위한 동맹합동 교리	2018-03-15
	12	7107	AJP-2.7	합동정보, 정찰, 감시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1999-01-27, 2009-07-07, 2016-07-14
	13	6521	AJP-2.8	정보 측정 및 특징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8-09-05
	14	6522	AJP-2.9	공개소스 정보(OSINT)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9-06-12
	15	1459	AJP-3.1	해상 작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4-03-26, 2008-02-14, 2016-12-16
	16	2288	AJP-3.2	지상 작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9-10-28, 2016-03-15
	17	2296	AJP-3.21	군 경찰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9-09-21, 2019-02-25

레벨 2	18	3700	AJP-3.3	항공 및 우주 작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1995-07-27, 2000-10-10, 2009-11-05, 2016-04-08
	19	3880	AJP-3.3.1	대응 공군작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9-09-11
	20	3736	AJP-3.3.2	근접 항공지원 및 항공 차단 위한 동맹 합동 교리	1991-01-01, 1999-10-05, 2004-07-23, 2009-09-11
	21	3703	AJP-3.3.3	해군 항공력 협력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1995-01-01, 1995-10-17, 2005-03-08, 2014-12-02
	22	3805	AJP-3.3.5	항공우주 통제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1-12-14, 2006-03-03, 2006-04-05, 2013-05-08
	23	2181	AJP-3.4.1	군의 평화 지원 기여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1-08-01, 2014-12-02
	24	2514	AJP-3.4.2	비전투원 철수 작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3-05-14
	25	2576	AJP-3.4.3	군의 인도적 지원 기여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5-10-08
	26	2611	AJP-3.4.4	봉기 대응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1-02-04, 2016-07-14
	27	2590	AJP-3.4.5	군의 안정 및 재건에 기여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5-12-14
	28	2523	AJP-3.5	특수 작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9-02-27, 2013-12-17, 2019-08-07
	29	6018	AJP-3.6	전자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1-11-07, 2004-02-05, 2020-03-24
	30	6511	AJP-3.7	적대적 환경에 처한 인력의 구출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6-02-23
	31	2451	AJP-3.8	포괄적 CBRN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1998-10-23, 2004-02-05, 2012-03-30, 2018-10-03
	32	2524	AJP-3.9	합동 표적화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9-05-22, 2016-04-08
	33	2518	AJP-3.10	정보 작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9-11-23, 2015-12-07
	34	2508	AJP-3.10.1	심리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2-07-28, 2005-05-10, 2014-09-02

레벨 2	35	6518	AJP-3.10.2	보안 및 기만 작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20-01-29
	36	2507	AJP-3.11	기상/해상 지원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6-11-04
	37	2238	AJP-3.12	군 공병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4-03-09, 2010-09-28, 2014-07-20, 2021-01-20
	38	2532	AJP-3.13	군사력 배치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8-06-06, 2021-05-17
	39	2528	AJP-3.14	군사력 보호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7-11-26, 2015-04-02
	40	2295	AJP-3.15	사제폭탄(IED) 대응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8-11-14, 2012-05-31, 2018-02-08
	41	6512	AJP-3.16	보안 군사력 지원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6-05-17
	42	2599	AJP-3.17	특정 지역(Geospatial) 지원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6-10-16
	43	2628	AJP-3.18	폭발성 탄약 폐기 지원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7-03-06
	44	2509	AJP-3.19	민군 협력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3-11-11, 2013-02-08, 2018-11-09
	45	6514	AJP-3.20	사이버 작전을 위한 동맹합동 교리	2020-01-29
	46	2616	AJP-3.22	안정화 경찰 업무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6-07-14
	47	2506	AJP-4.4	동맹 합동 이동 및 수송 교리	2002-02-28, 2013-05-07
	48	2234	AJP-4.5	피파견(Host) 국가 지원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1-12-11, 2013-05-06, 2021-04-27
	49	2230	AJP-4.6	합동 군수 지원 그룹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1-07-21, 2004-04-13, 2014-04-01, 2018-12-05
	50	2228	AJP-4.10	의료지원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2-02-28, 2006-03-03, 2015-05-28, 2019-09-11
	51	2292	AJP-4.11	자산가시화(Asset Visibility)를 위한 동맹합동 교리	2011-02-21
	52	2536	AJP-4.7	석유를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06-10-27, 2013-05-06, 2017-10-17
레벨 3	53	7212	AAMedP-1	항공우주 약품 교리	2016-12-15
	54	3204	AAMedP-1.1	항공의료 후송 교리	2007-03-01, 2014-11-17, 2020-07-06

3 레 비 리	55	no cov	AAP-47	연합 합동 교리 개발	2007-11-05, 2011-09-08, 2013-12-19, 2017-07-17
	56	2644	AArtyP-02	나토 대포병 사격 교리	2020-12-09
	57	2484	AArtyP-05	나토 화력 지원 교리	2002-01-15, 2010-11-25, 2015-11-05
	58	7141	AJEP-4	나토 주도 군사행동 기간 중 환경보호를 위한 합동 교리	2006-12-20, 2008-02-26, 2014-05-15, 2018-03-08
	59	2542	AJmedP-1	동맹 합동 의료 계획 교리	2009-11-03, 2018-09-17
	60	2546	AJmedP-2	의료 후송을 위한 동맹 합동 의료 계획 교리	2008-11-24, 2018-08-29
	61	2547	AJmedP-3	의료 정보를 위한 동맹 합동 의료 교리	2008-11-24, 2015-05-28
	62	2561	AJmedP-4	동맹 합동 의료군사력의 건강 보호 교리	2011-04-05, 2018-07-27
	63	2563	AJmedP-6	동맹 합동 민군 의료 인터페이스 교리	2011-10-04, 2015-11-05
	64	2596	AJmedP-7	핵화생방 방어 작전을 위한 동맹 합동 교리	2015-05-28
	65	2598	AJmedP-8	군 건강 관리를 위한 동맹 합동 의료 교리	2018-02-08
	66	2406	ALP-4.2	지상군 군수 교리	1995-01-01, 2000-08-31, 2004-04-19, 2010-02-04, 2015-12-08
	67	7166	ALP-4.3	공군 군수보급 교리와 절차	2002-09-16, 2020-11-04
	68	7167	ALP-4.3.1	공군 군수 교리와 절차에 대한 보충 1(새로)	2002-05-01
	69	7207	ATP-3.3.4	공중 수송 및 공대공 재급유 교리	2013-04-22
	70	1149	ATP-08	수륙 양용 작전을 위한 교리	2008-02-08, 2009-03-20, 2011-01-11, 2013-05-31, 2017-03-08
	71	7217	ATP-3.3.6	항공 작전을 위한 군 보호 교리	2016-04-08
	72	6519	ATP-3.6.4	나토의 적 방공망 압박(sead) 교리	2017-07-13
	73	2285	ATP-3.9.2	지상 목표물 조준을 위한 동맹 전술 교리	2006-05-16, 2018-05-03
	74	2394	ATP-3.12.1.	군사 엔지니어링을 위한 동맹 전술 교리	2016-02-23

레벨 3	75	2626	ATP-3.12.1.1	군사 수색 교육 장비를 위한 동맹 전술 교리	2016-12-14
	76	2683	ATP-3.12.1.2	군사 수색을 위한 동맹 전술 교리	2017-10-17
	77	2625	ATP-3.12.1.3	경로 정비를 위한 동맹 전술 교리	2016-03-18, 2020-02-07
	78	2999	ATP-49	지상 작전에서 헬기 사용 교리	2004-09-13, 2005-05-18, 2008-10-31, 2012-10-15, 2016-03-03
	79	2618	ATP-82	지상 배치방공망을 위한 동맹 교리	2018-01-31

참고문헌

- 김규철. 2020. “러시아의 군사전략: 위협 인식과 군사력 건설동향.” 『군사논단』 100권 특별호. pp. 293-354.
- 문정인. 201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무엇이 문제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58. pp. 14-23
- 박휘락. 2019. “나토와 한미동맹의 군사지휘체제 비교: 지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군사학 논집』 . pp. 1-29.
- 안광찬. 2003.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성규. 2020. “러시아의 탈냉전기(1992년-2016년) 군사적 공세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 2022. “나토의 레벨-1 교리 표준화 문서에 나타난 지휘관계 검토: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 미래 한미 연합사 지휘관계에 대한 함의.” 『신아세아』 29권 2호. pp. 31-60.
- 안성규·이상호. 2020. “나토의 군사 합동성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에 미치는 함의.” 『국가정보연구』 제13권2호. pp. 33-72.

- 유병현. 2007.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
- 윤지원. 2018. “러시아 국방개혁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성에 대한 고찰: 푸틴 4기 재집권과 국가 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집 3호. pp. 84-100.
- Schweller, Randall 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pp. 72-107.
- Snyder, Glen H. 1997. *Alliance in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 Stephen. 1985.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 pp. 3-43.
- 한미연합사 홈페이지.
<https://www.usfk.mil/About/Combined-Forces-Command/>(검색일: 2022. 1. 28.).
- NATO. Readiness Action Plan. 2021.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119353.htm(검색일: 2021. 10. 25).
- NATO Standardization Office(NSO). 2021. Public Site.
<https://nso.nato.int/nso/nsdd/main/list-promulg>(검색일: 2020. 10. 21).
- NATO. 2014. Secretary General's Annual Report 2013.
https://www.nato.int/cps/en/natolive/opinions_106247.htm(검색일: 2021. 8. 21).

- NATO. 2017. AJP-01 Allied Joint Doctrine Edition E version 1.
- NATO. 2018. AAP-03 Directive for the Produc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NATO Standardization Documents Edition K version 1.
- NATO. 2019. AAP-47 Allied Joint Doctrine Development.
- NATO. 2019. AJP-3 Allied Joint Doctrine for the Conduct of Operations Edition C version 1.
- NATO 홈페이지. <https://nso.nato.int/nso/nsdd/main/list-promulg>
(검색일: 2021. 10. 24).

[인터넷 자료]

<한국 사이트 및 언론 기사>

합동참모본부. 2022. 한글용어사전.

<https://new.mnd.go.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1157&siteId=jcs>(검색일: 2022. 1. 25).

연합권한 위임사항.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7156&cid=42157&categoryId=42157>(검색일 2021. 10. 21).

논문 접수일 : 2023년 04월 19일
심사 완료일 : 2023년 08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8월 24일

<Abstract>

Reinforcing Korea-U.S. Combined Structure to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mplication of NATO Standardization Document on Combined Interoperability

Sungkyu Ahn Senior researcher of Institute for the study of Global Future Strategy at Sung Kyun Kwan University.

Sangho Lee Professor, Daejeon University,

The Korea-U.S. alliance is focusing on strengthening interoperability during the recent joint military exercises in order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threats. NATO and Korea-U.S. alliances are different as the former is a multilateral and latter bilateral: however, both are defensive alliances where U.S. has primary role in providing core capability. Interoperability allows evasion of dichotomy between peace and wartime force structure. This will

eventually allow the combined standing alliance posture in Korea to match the level similar to NATO. This will also enable further discus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issue without affecting joint Korea-U.S. defense structure.

Keywords: Interoperability, Joint Operation, Standardization, Combined Structure, Allied Joint Doctrine